

EU, 중기 농촌개발전략 채택

2005년 7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촌개발을 위한 전략 가이드라인(EU strategic guideline for rural development)을 채택했다. 6월 20일 유럽연합 이사회와 새로운 농촌개발 관련 규제에 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이후 채택한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국들의 국가 단위 농촌개발 프로그램 마련의 기반이 된다.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과정에서 농촌 개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확대 이후에도 농촌 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90%를 상회하고 있고, 새로 도입된 규정은 리스본 전략에 발맞추어 농촌 개발과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위해 농촌개발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농업 및 농촌개발 집행위원인 Mariann Fischer Boel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촌 지역에 생명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유럽연합 인구 절반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농촌개발 전략은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고, 자국의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선의 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촌개발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혁신과 경제적인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농촌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07~13년에 실행된 농촌개발정책은 새로운 농촌개발 규제가 제시한 ‘세 가지 축(three axes)’에 맞추어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 친환경적인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경제 다각화가 그

것이다. 과거 LEADER 프로그램 실시 경험에 기초한 네 번째 축은 지역에 기초한 상향식 농촌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각 회원국은 2005년 가을까지 이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해야 하고, 2006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국가 단위의 세부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유럽연합 지원 자금을 이용해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선정
- ② 유럽연합의 우선순위 기조(리스본 전략, Göteborg)와 연계
- ③ 유럽연합 정책과의 동조성
- ④ 보다 시장 지향적인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실행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신규 회원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기회 부여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